

## ‘컴퓨터 분야의 개척자’

김은영 박사(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)

성기수 박사님의 회갑을 맞이하여 후배나 동료들이 기념집을 발간하는데 있어 그 서두에 몇 자 쓰게 된 것을 크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성기수 박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KIST가 탄생된 다음 해인 1967년 말, 공군 대위의 복장으로 홍콩을 출근하던 때였습니다. 하버드대학의 천재, 박사학위를 제일 빨리 딴 사람으로 당시부터 과학기술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. 그후 KIST 아파트에 15년 같이 살다보니 바둑의 공헌도 컸지만 성 박사님 대과는 안팎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. 제가 보는 성 박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고등학교 학생 같은 머리에 항상 나이에 비해 젊어 보시고 유한 것 같으면서도 속에 투철한 생활철학을 갖고 계신 컴퓨터 박사이십니다. 특히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시고, 이러한 끈은 성격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셨습니다.

성 박사님이 젊음을 바쳐 이룩한 시스템공학연구소에는 성 박사님의 독특한 연구풍토가 살아 있고 KIST 초창기 제도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는 철저하게 프로젝트와 인원의 연동을 강조하셨고, 각 프로젝트팀에게 전권을 주어 연구팀을 활성화하셨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.

성 박사님의 업적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. 우리나라 정보산업 육성의 기수로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으며, 컴퓨터 응용기술개발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도입 및 국내 보급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. 특히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경기정보시스템

(GIONS)의 개발, 운영을 지휘하여 전세계의 찬사를 받았고, 이는 20여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력이 발휘된 쾌거였으며, '장외의 금메달'이었습니다.

또한 선진국에서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연구개발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, 국내 최초로 도입 운영하여 국내 관련분야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.

그리고 정부 행정전산화, 실명제, 대입학력고사, 의료보험제도 등 우리나라에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 정착시킨 사례와 우리나라 컴퓨터분야의 발전과 변화에 끼친 그의 영향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.

앞으로도 현재 몸담고 계신 연구개발정보센터에서 더욱 더 빛나는 업적 남기시기를 바라며, 성 박사님의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